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5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정책과 정대진 과장(2110-5111),
산업융합팀 김종주 팀장(2110-5125), 최은신 사무관(2110-5115)

정부·업계 함께 모여 산업간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추진한다

- 5.14(화) 융합 규제 및 애로 개선 추진단 발족-

1 추진 배경

◈ **(사례1:헬스케어 의류)** 국내 A사는 의류 착용만으로 심박수, 혈압 등의 측정을 통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IT+BT+섬유)

→ 일반 의류제품인지 의료(보조)기기인지 명확한 분류기준 없어 판매기준·AS기준·품질보증 기준 수립 등이 어려워 시장활성화에 제약

◈ **(사례2:당뇨폰)** 국내 B사는 혈당측정, 투약관리 등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인 **당뇨폰**(IT+BT)을 2004년에 개발

→ 개발 당시,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각종 인·허가 부담 및 유통확대 제한 등으로 사업화 지연 (의료기기 판매업자 허가 및 각종 시설기준 별도 구비 필요)

* '07.7월 당뇨폰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신사 등에서 판매 가능하나 사업회시점 상당 지연

□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영역이 등장**하고 있으나, 단일 기술·산업 중심의 기존 규제 틀에서는 **신개념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음

○ 특히, **빠르게 개발되는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비해 해당 규정 등의 정비는 늦어**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이 되는 등 **규제가 융합 신시장 창출 및 융합 산업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융합 규제개선 추진단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단장: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이하: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함

○ 2013.5.14(화) 15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Kick-off회의에는 **규제 관련 정부부처, 심영섭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및 주요 업종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함

○ 참석자들은 융합활성화를 위한 **규제장벽 해소와 제도 정비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함

3 추진 계획

□ 구체적으로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융합기술 공급산업군-수요산업간 연석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먼저, 2주간(5.13일~24일)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Bottom-up 방식과 함께 **법규 조사** 등을 통한 Top-Down 방식의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

◈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추진계획** (5.13일~24일, 2주간)

- (조사 대상) 3천여개 중소기업 등 융합 제조 및 서비스 기업
- (조사 체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총괄), 업종별 단체 및 연구기관*, R&D 지원기관(산기평, 진흥원), 지역별 TP 등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노융합·차세대융합컨텐츠 협회 등

- (조사 내용) 개별 기업 대상의 Bottom-Up방식 + R&D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Top-Down방식 병행(Two-Track)

  * (Bottom-up)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업종별 단체, 지역 TP 및 생기연)
  (Top-down) 법규 조사, R&D과제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수요 분석 (산업부 및 관련기관)

○ 공급산업群(IT,BT,NT 등)과 수요산업(자동차, 의료 등)간 **N 對 1 교류협의체**(인증, R&D지원기관 참여)를 통해 **기술+산업 융합형** 규제 및 애로 사항 발굴할 예정

* 공급군과 수요군간 협업을 통해 융합 신제품을 기획하고, 발생 가능한 규제·규정 정비 필요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연구

○ 아울러, 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담당자의 합동 현장방문**(산업부 및 해당 규제별 주무부처)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

□ 개별적인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융합산업화에 **적합한 규제 방식 및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융합신제품 인증수요 사전 발굴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제시를 통해 융합인증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거나 미비**로 시장 출시 지연되는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 Fast Track**제도 (6개월이내 의무 인증)를 본격 시행

○ 상시적인 기업창구로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 및 역할,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또한, 기업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융합제품의 초기 시장창출 애로 해결**도 병행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하여 금년 7월 이전에 「**융복합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 산업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은 우리 경제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DNA**"임을 강조함

○ "특히 융합은 **Negative 규제 방식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나,** 융합신제품에 적용되는 한 가지 규제가 Negative 방식이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Positive 방식이라면 결과적으로는 Positive 규제가 적용**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 "융복합 규제 개선은 **모든 부처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정책 과제인만큼, **각 부처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 고 당부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산업융합팀) 최은신 사무관(☎ 02-2110-5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3. 5. 14(화) 15:00~16:00, 정부과천청사3동 다산실(623호)

□ **주요 의제** : 융합 저해 규제 및 애로 발굴 추진방안

□ **참석 대상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주재)**

○ **(정부)** 산업부, 재정부, 미래부, 안행부, 문화부, 복지부, 식약처, 중기청 등

○ **(융합기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간사), 산업융합옴부즈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업종별)**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조합

* 참석대상업종 :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바이오나노, 섬유산업 등

○ **(유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 **회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3	인사말씀	산업정책실장
15:03～15:10	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추진계획	산업융합팀장
15:10～15:20	융합 애로 실태조사 세부계획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5:20～15:55	자유 토론	
15:55～16:00	마무리말씀	산업정책실장

붙임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 관련기관 참석자 명단(안)**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비고
융합 관련 기관	산업융합옴부즈만	옴부즈만	심영섭	
	산업융합지원센터	본부장	손용희	간사
		실장	김민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고병철	
업종 관련 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부장	김주홍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실장	김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이광순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	이승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권영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	채효근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전무	한상록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실장	도철구	
	한국환경컨설팅협회	사무국장	김남국	
유관 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박선희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문위원	손영욱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실장	손동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장	이효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호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양평식	
	벤처기업협회	전무	김영수	